

[정윤아의 '컬렉터의 마음을 훔친 세기의 작품들'] 칼더 | 바람 따라 춤추네...모빌 조각의 아버지

May 4, 2020 | 정윤아 크리스티 스페셜리스트

page 1 of 3

1943년 9월 29일 뉴욕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 개막식이 열렸다. 이 전시는 해당 예술가 나이가 불과 마흔다섯이라는 점만으로 이미 큰 화제가 됐다. 이 미술관 개관 이래 가장 젊은 예술가의 회고전이었던 때문이다. 게다가 철사 줄을 꼬아서 만든 다양한 초상 인물과 서커스 공연자들, 천장에 늘어진 조각품 등 전시장을 가득 메운 기상천외한 작품들은 관객을 열광시킬 정도로 참신하고 흥미로웠다.

40대 중반 나이에 미술계와 대중 모두를 사로잡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거머쥔 주인공은 바로 움직이는 조각의 선구자로 칭송받는 미국의 대표적인 조각가 칼더(Alexander Calder, 1898~1976년)다.

유명한 조각가 할머니와 아버지, 화가 어머니로부터 예술가의 피를 물려받은 덕인지 어려서부터 그는 그림도 잘 그리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똑딱 만들어내고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대에 진학했고, 20대 후반까지 선박 정비, 능률기사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쳤다. 늘 창작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예술가 대신 평범한 직장인이 되기를 바랐던 부모님 뜻에 따랐던 것. 하지만 타고난 예술가 기질을 어찌 누를 수 있겠는가. 결국 스물여덟 되던 해에 뉴욕에서 미술 공부를 시작했고, 곧 파리로 활동 무대를 옮긴다.



'날치 (Flying Fish, 1957년)'. 2미터가 넘는 대형 모빌로 2014년 5월 13일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높은 추정가의 두 배가 넘는 금액(약 2600만달러, 약 318억원)에 낙찰돼 그의 전작 가운데 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

당시 전 세계 예술가들이 모여 있던 파리는 칼더의 창작 본능을 일깨우기에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공학도 출신인 그는 전공을 살려 기계 장치가 달린 장난감을 제작, 매주 서커스 공연을 열었다. 철사 줄로 만든 곡예사, 폐품을 활용해 만든 코끼리, 원숭이 같은 동물들이 그의 조종에 의해 살아 있는 듯 움직였다. 이 공연이 어찌나 재미있었는지 금세 입소문을 타고 파리 미술계에 번져나갔고, 많은 예술가와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몇 년 뒤에는 그의 예술 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미로, 몬드리안, 뒤샹 같은 거장들과도 만날 수 있었다.

칼더 조각의 유기적 형태와 초현실주의 성향은 미로의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회화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정, 빨강, 하양, 노랑, 파랑 같은 원색 사용은 몬드리안의 영향이다. 그의 작업실에서 간결하고 아름다운 원색의 기하학적 추상화를 본 칼더는 저 그림들이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상상했다. 그 기발한 상상이 오늘날 그를 세계적인 조각가로 만든, 움직이는 조각의 출발점이다. 칠을 한 얇은 철판을 철사 줄에 매달고 동력 장치를 달아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상상을 실현시킨 것이다. 움직이는 그의 조각을 본 뒤샹은 1931년 이를 '모빌'이라고 명명했고, 이로써 칼더는 '모빌' 조각의 아버지가 됐다.



'암탉(Hen, 1943년)'. 알루미늄이나 철 등 금속을 구하기 어려운 전쟁 시기에 제작한 나무 조각으로 2018년 11월 13일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840만달러(약 102억원)에 낙찰됐다.

이후에도 그의 연구는 계속됐다. 기계 동력이 만들어내는 반복적인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기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양한 움직임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천장에 매다는 조각을 제작하는 등 재료, 테크닉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 형태의 모빌 조각을 끝없이 시도했다.

일례로 '날치(Flying Fish, 1957년)'라는 제목의 작품을 보라. 2미터 넘는 대형 조각의 기념비적 성격과 칼더 특유의 모빌 조각의 섬세함이 완벽하게 결합한 예다. 이 모빌은 2014년 5월 13일,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높은 추정가의 두 배가 넘는 금액(약 2600만달러, 약 318억원)에 낙찰돼 지금까지도 그의 전작 중 경매 최고가를 자랑한다.

매끈한 검정색 물고기의 몸통과 여러 개 작은 판으로 표현된 꼬리는 생의 기쁨을 분출하는 칼더 특유의 활력 넘치는 구성을 보여준다. 다의적 상징성을 지니는 물고기는 그가 평생에 걸쳐 선호한 주제 중 하나였다. 기독교에서는 두 마리 물고기로 오천 명을 먹인 예수의 기적을 상징하며, 불교에서는 풍요로움과 번영, 행운을 의미하는 여덟 가지 상징 중 하나기도 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오랜 종교 전통에 기반한 물고기라는 주제는 관객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측면이 있다. 구겐하임미술관 설립자의 질녀이자 유명한 컬렉터였던 페기 구겐하임은 칼더의 물고기 조각을 유달리 좋아했던 컬렉터 중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물한 개의 하얀 잎사귀들(21 Feuilles Blanches)'. 유가족이 50년 가까이 소장하다가 2018년 11월 15일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출품돼 낮은 추정가의 세 배가 넘는 금액(1800만달러, 약 220억원)에 낙찰됐다.

알루미늄이나 철이 부족했던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나무로도 작업을 했다. 그 좋은 예로 '암탉(Hen, 1943년)'을 보라. 이 작품은 2018년 11월 13일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840만 달러(약 102억원)에 낙찰됐다. 큰 나무 토막을 깎아 새의 몸통 형태를 만들고 작은 세 토막을 유기적으로 깎아서 철사로 몸통에 연결해 단순하지만 섬세하게 머리와 깃털을 표현한 작품이다. 파랑과 빨강의 강조로 극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완벽한 균형감으로 인해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통통 튀는 것만 같은 가벼움을 연출한다. 금속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나무를 선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재료가 지니는 내재적 성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이런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실 칼더가 나무 조각을 한 것은 192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랜 기간 재료를 다루어 숙련됐기 때문에 '암탉' 같은 작품이 가능했던 것이라.

'칼더'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전형적인 형태의 천장에 매다는 모빌 가운데 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은 '스물한 개의 하얀 잎사귀들(21 Feuilles Blanches)'이다. 공기의 흐름에 따라 주변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미묘하고 우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빌이다. 유가족이 50년 가까이 소장하다 2018년 11월 15일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출품돼 큰 화제가 됐다. 전 세계 컬렉터의 높은 관심 속에 낮은 추정가의 세 배가 넘는 금액(1800만 달러, 약 220억원)에 낙찰됐다.

하나의 철사 줄에 매달려 늘어진 21개의 하얀 철판들은 모두 유기적인 형태다. 얇은 금속 판으로 제작, 구성 전체에 가벼움을 부여했다. 바람이 불거나 공기의 흐름이 변하면 이에 따라 마치 우아한 춤을 추듯 이 철판들이 미묘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르트르는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칼더에 대해 "움직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포착한다"며 모던 조각의 선구자라고 평가되는 브랑쿠시 작품보다도 높이 평가했다. 그의 모빌이 무게와 부피감을 지닌 전통 조각을 초월한 완벽하게 새로운 조각이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가능했으리라. "모빌은 놀라움과 삶의 기쁨, 그리고 춤추는 하나의 시가 된다"는 그의 말처럼 칼더의 조각은 바람이 불면 우아하게 울려 퍼지는 움직이는 교향곡이자 한 편의 아름다운 시가 된다.

[정윤아 크리스티 스페셜리스트]